아파트 매매가 전국 주춤…광주·전남은 상승

주간 가격동향, 개발 호재속 전남 0.11%·광주 0.03% ↑

전세는 보합…공급 확대·대출규제에 내년 전망은 어두워

전남 아파트 매매가격이 SRT 고속철도 개통과 개발호재 등의 기대감으로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 지역도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거주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실수요층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대비 0.02% 상승한 가운데 광주 지역은 0.03% 올랐다.

이는 올들어 처음으로 전국 평균 수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세가격은 전주(0.04%)와 동일한 상승 폭을 보였다.광주 지역의 매매·전세가격은 가을성수기에 접어든 9월 26일(0.02%·0.05%)부터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10월 3일(0.04%·0.05%), 31일(0.04%·0.07%), 11월 7일(0.01%·0.03%), 14일(0.02%·0.01%), 21일(0.03%·0.04%) 등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개발호재 등의 영향으로 여수시와 순천시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격이 0.11%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평균(0.03%)과 지방평균(0.01%)을 뛰어넘는 수치로 부산(0.1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강원·세종(0.06%), 서울(0.0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 역시 0.10% 상승, 지난주의 상승률(0.09%)보다 높은 증가 폭을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및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SRT 고속철도 개통과 개발호재 등의 기대감이 높은 광역시 및 시군으로 관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주택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쏟아지는 분양물량에 주택인허가는 폭증하고 정부의 청약규제에다 내년부터는 잔금대출규제까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부터 공급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하면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한다지만 주택시장이 무너지면 기존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까지 쏟아지고 있어 건설사들의 미분양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신규 아파트에 6273가구가 입주한다. 광주가 3654가구, 전남이 2619가구에 달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모바일 쇼핑앱 '쿠팡' 소비자 만족도 1위

온라인 쇼핑사이트 중 모바일 쇼핑 소비자 만족도 1위는 쿠팡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시장 점유율 상위 6개 업체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쿠팡이 5점 만점에 4.10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티몬 4.00점, 옥션·위메프가 각각 3.98점, G마켓 3.95점, 11번가 3.94점의 순이었으며 전체 종합만족도 평균은 3.99점이었다.

쿠팡은 앱의 검색환경과 고객 니즈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한 '화면구성과 고객기대 부응'(4.05점), 이용 후 느낀 주관적 감정을 평가한 '서비스 감정'(3.87점), 결제시스템(3.74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71.3%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결제방식이 간편해서(14.5%), '쿠폰 및 이벤트가 다양해서'(7.6%)가 이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73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7	13	25	42	45	3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40,471,054	7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0,678,880	45
3	5개 숫자일치	1,431,106	1,908
4	4개 숫자일치	50,000	96,083
5	3개 숫자일치	5,000	1,594,258

기아차 광주공장 화합 한마당 4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주최한 '나눔과 사랑의 축제한마당'에서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화합의 비빔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아차 광주공장 엄원용 지원실장, 김승철 광주1공장장, 김진수 광주2공장장,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 기아차 광주공장 김종웅 공장장, 기아차 노동조합 박주기 광주지회장, 기아차 노동조합 김성락 지부장. 〈기아차 제공〉

지역 스마트 창업기업 한자리에

광주정보문화진흥원 CGI센터 7~9일 '스마트 위크데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광주CGI센터를 VR체험, 3D프린팅,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오는 7일부터 3일간 '내일로의 비상, 2016 스마트 위크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창업한 기업들이 한 해 추진한 프로젝트 200여 개의 성과를 한자리에 선보이고,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7일 통합 개회식에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장병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스마트창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계획과 대책'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8일에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개소식을 한다. 글로벌 체감형 게임 허브도시를 표방하는 글로벌게임센터는 이번 개소식에 입주한 기업들의 다양한 VR체감형 게임 체험과 중국 일본 등에 선보일 새로운 게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기업 투어도 마련돼 게임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젊은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기간(7~9일) 지역 스마트 창업팀 약 40명이 참여하는 '아이디어융합 워크숍'과 지역 콘텐츠기업 채용설명회 등 취업준비생 1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콘텐츠 Job Con-act'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 9일 아이디어융합 워크숍에서는 우수 창업팀을 선정, 시상한다. 우수 창업팀에 선정되면 맥북, 아이패드 등의 상품을 받을 수 있고 맞춤형 멘토단을 꾸려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창업팀간 아이디어를 융합해 콜라보 브랜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돌입하나

임단협 결렬에 쟁의 투표 가결…오늘 대책위서 일정 논의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한 가운데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채권단의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쉽게 파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조원과 관련업계의 분위기가 파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안에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단체협상 등 생존권 보장을 최대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할것이지만 파업 분위기에 다다른 것은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1~2일 이틀간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292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재적조합원 대비 72.86%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6월21일부터 5개월 간 16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상 본교섭을 가졌지만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지난달 18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사측은 본교섭에서 ▲기본급 1% 인상(수당의 기본급화 협의) ▲2015년 경영실적 적자로 인한 성과금 지급 불가 ▲2016년 성과금은 연말 경영실적 기준으로 결정 ▲임금피크제 만 58세부터 만 61세까지 매년 기본급 10% 감액(만 57세 12월 기본급 기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5.16% 정률 인상(기본급 2~3% 인상) ▲2015년 성과배분 및 2016년 성과금 최저 보장 ▲매각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5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한 뒤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측은 노조가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한 것과 관련 "최근 지속적인 경영실적의 악화와 경쟁력의 저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절차 진행은 회사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국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국민부담률 사상 첫 25% 돌파

GDP 4분의 1이상 세금·연금 납부…전년비 0.7%P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복지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부담률 역시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로 상승했다.

2005년 22.5%, 2006년 23.7%, 2007년 24.8%까지 오르던 국민부담률은 그러나 2010년 23.4%, 2011년 24.2%, 2012년 24.8%, 2013년 24.3%, 2014년 24.6% 등으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사상 처음으로 25%대에 올라섰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세 곳밖에 없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3%로 우리나라에 비해 9%포인트 높았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부담률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전년(34.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2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7개국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